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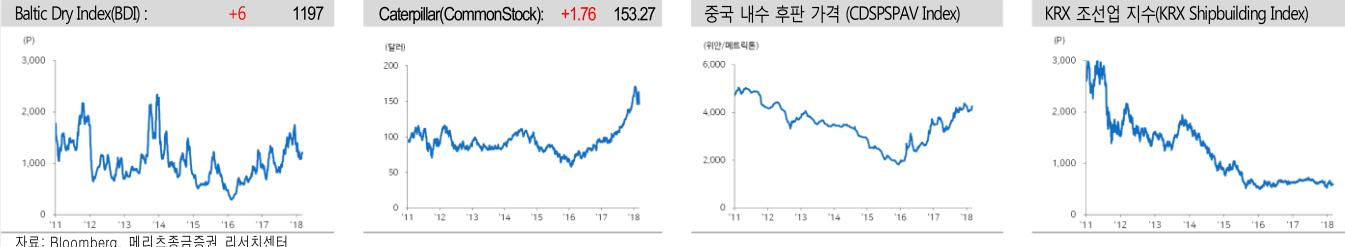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현대중공업	8,519.4	18.5	144,500	5.5	9.1	19.6	50.6	100.7	48.3	0.7
현대로보티스	7,215.0	21.2	443,000	24	-1.7	15.8	16.3	6.0	5.0	0.8
현대일렉트릭	871.6	6.9	85,400	0.9	-25.7	-26.7	-25.1	8.1	7.1	0.7
현대건설기계	1,827.1	8.8	185,000	5.1	-5.9	22	9.5	11.8	8.7	1.3
삼성중공업	3,813.9	16.6	8,290	8.8	8.1	23.0	28.2	52.3	25.9	0.5
대우조선해양	2,869.1	5.2	26,900	2.1	25.4	57.3	93.5	11.6	12.1	0.8
현대미포조선	2,190.0	12.9	109,500	2.8	5.8	26.9	39.1	23.6	17.1	0.8
한진중공업	352.6	6.7	3,325	0.9	-3.5	6.9	0.5	66.9	16.7	0.5
현대엘리베이터	1,578.9	36.7	64,100	2.4	9.6	25.9	17.8	11.3	11.0	1.6
두산밥캣	3,203.0	27.3	31,950	1.1	-12.0	4.3	-10.8	11.7	11.0	0.9
현대로템	1,317.5	25.1	15,500	-1.9	-0.3	-18.2	-17.3	20.0	13.6	0.9
하이록코리아	324.0	48.0	23,800	1.1	-7.2	5.1	5.8	10.8	9.9	0.9
성광밴드	346.1	15.8	12,100	0.0	-6.6	26.1	21.2	1,069.6	43.4	0.8
태광	382.9	16.1	14,450	1.0	2.1	40.9	19.9	86.3	42.1	0.9
두산중공업	1,581.0	9.9	14,850	3.1	-1.7	-6.0	-3.3	12.2	9.2	0.5
두산인프라코어	1,846.2	14.5	8,870	0.9	-16.7	1.5	2.1	7.7	6.8	0.9
두산엔진	309.6	4.1	4,455	1.3	12.9	-5.3	20.9	-146.2	45.0	0.6
한국항공우주산업	4,625.2	17.5	47,450	-0.9	0.1	28	0.0	32.0	22.6	3.5
한화테크윈	1,501.7	12.8	28,550	2.1	-2.6	-14.9	-19.7	26.1	15.6	0.7
LIG넥스원	1,001.0	10.3	45,500	0.8	-13.2	-18.2	-23.9	17.9	12.8	1.6
태웅	395.1	3.3	19,750	0.8	-11.6	14.8	2.1	N/A	N/A	N/A
동성화이텍	243.4	4.9	9,020	1.9	6.5	86.0	78.6	-375.8	53.4	2.6
한국기본	321.8	16.0	7,320	3.4	4.0	34.4	36.6	60.7	32.8	1.0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조선 자구노력·사업재편으로 자력생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함. STX조선해양은 사업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로 들어가 차후 회생을 모색하기로 결정함. 양사에 신규자금 투입은 없을 예정이며, STX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계획과 LNG, LPG선 등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예정임. 그러나 생존의 조건으로 4월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임. 성동조선해양은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검토됐으나 장기간 순증설 지속과 유동성 부족이 예상돼 법정관리를 결정함. (연합뉴스)

## Korea Line Corp poised to order VLCCs

대한해운은 GS칼텍스와 장기운송계약(COA)를 맺고 현대중공업에 VLCC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발주 계약규모는 1.97억달러(2,100억원)로, 척당 선가는 9,850만달러로 알려짐. 해당 선박은 2019년 말부터 중동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으로 알려짐. (TradeWinds)

## HHI hopes to clean up by making scrubbers

현대중공업은 IMO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스크러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알려짐. 해운업체들은 더 많은 조선소가 스크러버 생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전세계 약 40여곳의 스크러버 제조업체 중 10곳이 한국업체로 알려짐. 그러나 여전히 Wartsila 등 유럽 제조업체가 최고로 인식됨. (TradeWinds)

## PC시장은 선주 편

석유제품운반선(PC선) 시장은 19년부터 PC선을 인도할 수 있는 조선소 Capa가 제한돼 수급균형이 개선될 전망임. 현재 PC선 수주잔고는 MR탱커 기준으로 약 480척으로, 2020년까지 실제로 인도될 탱커는 280척으로 알려짐.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신규 정유공장 증설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선박뉴스)

## Fredriksen doubles up on Flex's LNG carrier orders

지난 6일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LNG선 2척의 선주가 John Fredriksen의 Flex LNG로 알려짐. 또 지난주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 2척도 Flex LNG가 발주했다고 알려짐.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이 20년까지 LNG선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선박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고 알려짐. (TradeWinds)

## 남은 중견조선소 4곳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성동조선해양이 결과적으로 청산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살아남은 국내 중견조선소는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대한조선, STX조선해양으로 압축될 전망임. 중견조선소는 중국과 기술격차가 좀은 데다, 원자력경쟁력에서 밀린다고 알려짐. 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됨. (이데일리)

## Tsakos in talks with South Korean yards for tankers

그리스 탱커 선주 Panagiotis Tsakos는 오일메이저 Chevron에 용선하기 위해 11.4만DWT급 탱커를 발주하기 위해 대한조선과 성동조선해양과 논의 중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성동조선과 발주와 관련된 미팅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성동조선을 살리면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